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4.(금) 09:00 < 4.14.(금) 석간 > 배포 2023. 4. 13.(목)

카자흐스탄과 생산설비(플랜트)·광물자원 협력 확대키로

- 에너지·소재 생산설비(플랜트) 등 신규 사업(프로젝트) 수주 확대 기대

-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강점,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

- '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' 지지 당부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이창양 장관은 4월 14일(금) 09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스클랴르 로만(Sklyar Roman) 제1부총리와 만나 플랜트 수주 및 광물자원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였다.

양측은 한·카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및 원유 도입 확대에 힘입어 양국 간 무역 협력이 역대 최대(65억불) 규모를 달성한 점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하고,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교역규모(억불) : ('19) 42.19 → ('20) 30.88 → ('21) 32.11 → ('22) 65.25

❶(플랜트 수주) 이 장관은 제1부총리의 주도로 추진해 온 알마티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탱기즈 유전 원유생산 플랜트, 쉼켄트 복합화력 발전소 등 기반 시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양국 간 성공적 협력 경험을 강조하며, 앞으로도 에너지·소재 플랜트 등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.

❷ (광물자원 협력) 양측은 카자흐는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이 풍부*하고, 한국은 광물개발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,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,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밀접하게 소통키로 하였다.

* 크롬(1위), 우라늄(2위), 아연(8위), 망간(9위), 구리(11위), 철광석(12위) 등(매장량 기준)

❸ (2030 부산 엑스포) 이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며, 카자흐 정부의 각별한 지지를 당부하였다.

스클랴르 부총리는 카자흐스탄은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-카 특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카자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하였다.

이에, 이 장관은 그간 스클랴르 제1부총리가 우리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,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유성우 (044-203-5680)
		담당자	전문관	장다연 (044-203-5685)
	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	책임자	팀 장	정대환 (044-203-5259)
		담당자	사무관	양수영 (044-203-526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